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610호 1판 · 1952년 4월 20일 창사 · 69 ·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 음력 9월 8일 · kwangju.co.kr

부울경 메가시티 시동 거는데 광주·전남·전북은 '불협화음'

내일 대통령 참석 정부협력회의 충청권 메가시티·TK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호남권만 수수방관" 우려 목소리

광주·전남·전북이 추진하는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 인구 감소, 지역 경제 낙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각 지역을 '메가시티' 개념으로 묶어 경계를 허문 대형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호남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나주혁신도시에 이은 '지역 발전 시즌2'로 평가되는 대형 정부 계획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이미 호남에서 이탈해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구가 집적된 광주와 그렇지 못한 전남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가 인구 500만명 이상 인구집적지역만을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마저 있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역 등이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충청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그리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RE300' 등이 제안됐던 광주·전남·전북은 호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광주·전남과 초광역으로 묶이는 작업에서 아예 이탈했고, 광주와 전남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호남과의 연대를 포기하는 대신, 강원도 등지와 함께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초광역경제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북이 없는 상태에서 광주시가 대표 발표하는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 계획안에도 '시도 상생'은 담기지 못했다. 현재 광주·전남이 문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할 초광역 경제발전 프로젝트는 '광주·나주 에너지벨리' '광주와 광주 인근 5개 전남지역의 스마트시티' '전남·경남 남해안관광밸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날 협력회의에서 다른 지역은 미래 비전을 담은 굵직한 초광역 협력 사업을 내놓을 전망이며, 이 같은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이들 지역은 정부의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 경남지역은 지난 7월 발표한 제4차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잇는 부울경 순환철도가 반영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국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조마간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세워 부울경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 실증사업, 친환경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등 부울경 초광역협력 신규사업에 7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광주·전남·전북이 손을 잡지 못하면서 애초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등이 제안한 '광주·전남·전북의 RE300'은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RE300은 전남지역의 풍부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를 광주와 전북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호남의 새로운 산업 구도를 그리자는 청사진이다. 또 광주·전남·전북의 상생이 멀어지면서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결국 제대로 소비하거나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제주 풍력발전단지가 55차례 발전이 중단했는데, 이는 장비 고장 등의 원인이 아니라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거나 송출할 수단이 없는 탓이었다.

결국 정부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전남의 풍력 프로젝트도 광주와 전북과의 초광역 협력이 없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호남의 상생' 없이는 광주와 전남·북이 '한반도 안의 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지역개발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중심도시와 그 외 도시를 교통·정보·편의 등 관련 시설을 통해 하나로 묶어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며 "우선 인구가 미약하고, 경제규모가 미치지 못하는 권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송영길 "이낙연, 당 위해 승복할 것"

"선관위 이미 결정 … 이의제기, 다시 거론할 법적 절차 없다" 오늘 최고위에서 정무적 논의 … 이낙연 측 "당무위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이재명 후보가 '턱걸이 과반'으로 대선후보로 선출된 경선 결과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 이의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송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미 당 선관위에서는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법률적 절차는 없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 전 대표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면 민주당 스스로 이것 하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이낙연 후보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과정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낙연 후보가 당 전체를 위해 결단하고 승복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에서 이의제기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대표 측의 김종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원칙대로 당무위를 열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른 상황인데 유권해석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선관위원, 당대표가 아닌 당무위가 갖고 있다"며 "그래서 이낙연 캠프의 마지막 주장은 최종 결론을 내려면 당무위를 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난 10일 당선자를 발표했고 (이낙연 캠프가) 이의신청을 바로 당일에 했다"며 "사실 3~4일 안에 당무위를 긴급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 당무위가 '우리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합시다'라고 정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직업계 고교생 꿈 짓밟는 현장실습 ▶6면
광주에도 배구의 계절이 온다 ▶18면
新 전남인 - '인생수산' 서진옥 대표 ▶22면

수능 D-36, 마지막 모의평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를 한달여 앞둔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수능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심상정, 4번째 도전 …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정의당 심상정(사진) 의원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심 의원이 총 1만1943표 가운데 가장 많은 6044표(51.12%)를 얻어 대선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정미 전 대표는 5780표(48.88%)로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의 격차는 264표였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한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심 의원이 총 유효투표수 1만1828표 중 과반이 안되는 5433표(46.42%)를 얻어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심 의원은 2위인 이 전 대표와 결선 투표를 치렀다.

이날 심 의원이 정의당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심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에 이어 진보정당 후보로서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심 의원은 17대 대선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에서는 권영길 대표에게 패했고, 18대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했다. 19대 대선 때에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없이 독자 후보로서 완주해 6.17% 득표를 기록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